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4.1. ~ 4.7.)

이번 주 읽을 본문	가정	레 4 - 10	시 1 - 12
	개인	잠 19 - 25	골 2 - 살전 4
이번 주 암송구절	바른 신학 - 다섯 오직(2) - 오직 믿음(4)		
	<p>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p>		



골로새서 2장 /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개요**

- 1-7 굳게 서라
 8-15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16-23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은 골로새교회가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 힘썼습니다(1-5절). 그들도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6절). 바울은 그들이 받은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7절). 그때 골로새 교회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속이려는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8-15절). 또한 여러 가지 의식들과 천사 숭배로 미혹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16-19절). 몸을 괴롭게 하는 금욕주의도 있었습니다(20-23절). 이 모든 문제를 위한 대안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7절).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은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 많은 이단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칠 정도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무엇보다 성경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더욱 분명히 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피고 경계하는 것은 부수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들을 쳐서 멸함이 아니라, 주 안에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단대처법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님,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주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4월 2일(화)

레5

시3,4

잠20

골3

골로새서 3장 / 위의 것을 찾으라

개요

1-4 위의 것을 찾으라

5-17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18-25 아내와 종들에게

이단을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1-4절). 그러한 삶의 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입니다(5-11절). 신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입니다(12절).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삽니다(12-17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종들은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18-25절). 가장 약한 사람들을 신자의 삶의 일선에 놓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의 우선되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은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은 벗어 버릴 것입니다. 새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습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합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 악한 수단을 취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 일에 낮은 자들(아내, 종)이 먼저 언급됩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한 사람들부터 새로운 삶,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시작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새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위의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사랑을 오늘도 채워주시옵소서.

4월 3일(수)

레6

시5,6

잠21

골4

골로새서 4장 / 기도와 은혜로운 말

개요

- 1 상전들에게
- 2-6 힘쓸 일들
- 7-18 인사

상전들에게 주는 권면은 간단합니다. 하늘에 있는 상전을 기억하여 의와 공평으로 행하라입니다(1절). 다시 골로새교회 전체에게 권면하기를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2-4절). 기도는 복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또한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해야 합니다(5,6절). 바울은 끝으로 인사를 합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천거합니다(7-9절).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의 인사를 전합니다(10,11절). 에바브라와 누가와 데마의 문안도 전합니다(12-14절).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상기시키며 부탁과 인사를 전합니다(15-18절).

전도를 위해 힘쓸 일은 기도와 은혜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혜 가운데서 하는 말은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와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믿고 기대하며, 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말함으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주님을 의지하며, 은혜 가운데서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 믿음, 사랑, 소망**개요**

1 인사

2-10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3절).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믿음을 가진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를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4-6절). 그리하여 그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7절).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습니다(8-10절).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시는 예수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말과 삶을 연결합니다. 복음의 말은 신자의 삶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 삶은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수고이며,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균형은 모든 신자가 본받을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에서 건질 예수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를 본받는 삶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수고하게 하옵소서.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4월 5일(금)

레8

시9

잠23

살전2

데살로니가전서 2장 / 고난을 통과한 복음

개요

1-12 고난을 딛고 전한 복음

13-16 믿음으로 역사한 복음

17-20 영광과 기쁨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였습니다(살전 1:4). 그 증거를 바울은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딛고 복음을 전하였던 기억을 다시 한 번 떠올립니다(1-12절). 그들이 전한 말씀을 데살로니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받은 그들 안에 역사하였습니다(13-16절). 데살로니가교회는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영광이요 기쁨이었습니다(17-20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고난을 통과한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교회를 세우는 자들에게 무엇보다 큰 영광은 주님의 은혜로 부름 받은 신자들이요, 그 교회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한 교회가 주 안에서 세움을 받아 열매맺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없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야말로 자신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열매맺는교회가 복음 안에 서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각처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4월 6일(토)

레9

시10

잠24

살전3

데살로니가전서 3장 / 위로와 기쁨

개요

1-5 디모데를 보냄

6-10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들음

11-13 기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하였지만 여의치 않자 디모데를 보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게 합니다(1-5절). 그리고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은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었습니다(6-8절). 바울은 그 기쁜 소식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9,10절). 그는 여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길 원하며, 그들이 거룩하여 흠이 없기를 기도합니다(11-13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은 기쁨이면서 동시에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와 지체들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위로하십니다. 성도답게 서가는 모습을 들은 사도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 가지 시험이 위협하고 있는데 바로 서는 성도들의 믿음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신자들을 격려하십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주님, 우리 곁에 주신 귀한 지체들은 우리 위로요 기쁨입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역사를 찬송합니다.

4월 7일(주일)

레10

시11,12

잠25

살전4

데살로니가전서 4장 / 더욱 많이 힘쓰라

개요

1-2 행하는 바를 더욱 많이 힘쓰라

3-12 거룩함, 형제 사랑, 성실한 일

13-18 부활 소망의 위로

바울은 이미 배운 것을 따라 행하기에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합니다(1,2절). 그들이 배운 것은 거룩함입니다(3-8절). 또한 형제 사랑입니다(9,10절). 그리고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11,12절). 부활의 소망 안에서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13-18절). 신앙은 신자들의 삶 전체를 아우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다보면, 이미 아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같은 내용이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다 잘 아는 것도 아니며, 그렇게 다 사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힘써야 할 것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권면들을 간단히 나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바꾸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가? 나는 형제 사랑을 행하는가? 나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가? 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는가?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주님, 하루의 삶을 내다보고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주의 뜻을 헤아려 살고 있는지 반성합니다. 또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구합니다.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순모임

작고 강한 교회

Part 1. 작은 것이 망했다는 것은 아니다.

*칼 베이터스의 '작고 강한 교회'를 요약 및 발췌한 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1:28)

교회의 크기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는 교회 건강의 척도가 되지 못합니다. 건강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작은 규모를 가진 교회가 많습니다.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건강한 교회들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척형 교회

교회의 규모를 키우는 대신 작은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일을 사명으로 삼는 교회.

훈련형 교회

훈련하고 파송하는 교회.

은퇴자 공동체 교회

매년 회중의 20퍼센트를 차지하는 교인들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교회.

틈새 교회

인종이나 언어가 같은 사람들이나 주류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은 교회.

반문화 교회

주변 문화가 돌발과 같은 곳에 설립된 교회. 예를 들어, 공산주의 문화 속의 교회.

빈곤지역 교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의 교회.

박해받는 교회

교회가 심한 압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교회.

과도기의 교회

인구 이동이 잦은 지역에 있는 교회.

전략적인 작은 교회

의도적으로 규모를 작게 유지하는 교회.

이외에도 다양한 작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건강한 작은 교회들입니다. 세상은 건강한 작은 교회를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이 더 좋다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크기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작다는 것이 실패, 나태, 비전 부족, 내향적 성향, 지도력 결핍, 신학적 결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 자체가 이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 크기는 문제도, 자랑거리도, 변명거리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 좀 더 잘 해보겠다는 각오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 신약성경의 명령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세 명이 모여서 이를 수 없는 명령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교회가 커야만 예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일, 그 자체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18:20)

열매맺는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 개혁과 신앙을 따라 바른 신자의 삶을 살고,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하는 좋은 교회입니다. 규모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은 늘 따라다닙니다. 지금 우리 실정에 맞는 모임을 함께 꾸려가고, 건강한 신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전진하는 믿음으로 함께 하길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작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숨은 뜻을 생각하다'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주님, 열매맺는교회가 건강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에 힘쓰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한 지혜를 주시옵소서.